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열왕기상 19:1-8)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복음송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되리라.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렘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니라”(열왕기상 19:1-8).

휴가, 휴식, 휴전, 휴일, 휴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휴가를 떠납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 몇 개월동안 지친 육신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쉼을 가집니다.

어디로 여행할지, 숙소는 어디로 정할지, 그리고 교통편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영적성장을 위해 수련회나 캠프에 참여합니다.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충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지친 육신과 영적 휴식이 필요했던 엘리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 후 큰 승리를 거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렘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갔습니다. 천사를 통해 음식을 공급해 주면서 육적, 영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왕상 19장1-8절)

우리는 영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기도함으로서 응답의 열매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빠져 힘들어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왜 엘리야가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졌을까요?

1.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가져오는 결과나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때 문제만을 바라보기 보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고, 여러가지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합니다. / 엘리야는 **450**명과 대결하기 위해 그들 앞에 서습니다 / 바알 선지자는 오전 내내 난리 아닌 난리를 피우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름 한점없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은 같은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바알선지자 **450**명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일곱 번을 기도합니다. /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 삼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 기도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말 한 마디로 그는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이세벨)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너가 죽었던 바알 선지자처럼 죽게 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한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루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앞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당당했던 영웅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내일 이맘때에 죽는다는 사실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절망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처럼 돌에 맞아죽거나 찢게 죽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수백킬로 떨어진 곳인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있던 이스라엘에서 무려 140킬로나 떨어져 있는 유다의 최남단 도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고(서울시 중랑구에서 대전광역시청까지 140.8KM거리) 그것도 불안해서 종을 남겨두고, 광야 하룻길(30-50KM)을 더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70Km에서 190Km 떨어진 로렘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을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었습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왕상 19:5-8)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급함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출16:13-15)

다니엘 6:16-23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그는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지만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3-14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때

사람의 말과 환경을 바라보기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6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본문을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십니다. /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 우리의 상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실줄 믿습니다. (찬송_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엘리아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졌습니다.(5절). 엘리아가 먹고 마신 후 다시 잠들자, 천사는 또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져주었습니다.(7절)

천사는 엘리아를 두 번이나 돌보며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엘리아는 영적 회복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엘리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사망을 예언하였고, 나아가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말 4:5-6).

우리가 강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도 괜찮습니다. /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됩니다. / 회복시켜 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 / 일어나 먹으라** 그것도 두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러져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일은 자포자기하고 지쳐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꿈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제공한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여행하며 영적 휴식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지칠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면서 영적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가복음 1:35, 누가복음 5:16).

3주동안 동안 우리 교회는 교육청과 중랑구청앞에 나아가 공의를 외쳤습니다. 비가오고 무더위를 통해 사람들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매주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새힘을 얻어 더 크게 공의를 외쳤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듯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무더위와 비가 와서 심신이 지쳐갔지만 그럴 때 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쳐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간혹 우리는 주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간혹 우리는 주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 문제만을 보지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로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그런 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어루만짐과 일으키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이끄는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3. 피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세우신 영안교회를 통해 국내외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한국교회에 영적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4. 오늘 사슬을 이어 기도하는 정인환청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게하시고, 기도특공대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소서.